

對不起의 기능 변화에 대한 시론

박 찬 욱
(서울여자대학교)

1. 문제제기

본고의 목적은 對不起의 기능 변화를 고찰하고 ‘사과’ 이외에 어떠한 기능들을 수행하는지 화용론과 대화분석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데 있다. 사과행위는 기본적으로 상대가 규범을 어겼다고 인지한 이의 나무라기 행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나무람을 받은 이의 선택으로서, 사과하기는 이 중에서 나무람에 대한 수용 행위에 해당한다.(김하수 1991:43) 중국어 초학자라면 사과행위를 위한 표현으로서 으레 다음과 같은 인접쌍을 접한다.

- (1) A: 對不起.
B: 沒關係¹⁾.

으레 제시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인 화자들에게 전형성을 띠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對不起가 ‘사과’로서도 기능하지 않고 그에 대한 반응어로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1) 교재에 따라서는 沒關係로 대응하기도 하고 沒事兒로 대응하기도 한다. 아래의 논의에서는 沒事兒을 沒關係의 변이로 설정하고 沒關係로써 沒關係와 沒事兒을 모두 포괄하고자 한다.

서 沒關係의 제시가 오히려 어색하다면 우리는 對不起의 기능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아래 예를 살펴보자.

(2) [5.11.1]²⁾

.....

瑪麗: 我哪兒會做菜呀我從來就沒做過菜!

王峰: 其實做菜也沒甚麼難的, 一學就會。你看我, 不是也會做幾個菜嗎?

瑪麗: 可是“說起來容易, 做起來難”哪。對了, 我想起來了, 你那個“炒土豆”做得不錯, 我常吃土豆, 可從來沒吃過炒土豆。

王峰: 那不是炒土豆, 是素炒土豆絲。

瑪麗: 對不起²¹, 我忘了。哎, 對了, 你教我做這個菜吧!

王峰: 行啊, 你有廚房用具嗎?

예(2)에서 보이는 瑪麗의 對不起는 ‘사과’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 선행화자인 王峰의 발화는 瑪麗에 대한 나무라기가 아닌 수정하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對不起의 후행발화로서 沒關係가 이어질 경우 대화는 오히려 어색해진다.

이같이 단적인 예를 통해 우리는 對不起에 대해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첫째, “對不起”하면 “沒關係”를 먼저 떠올리는데 과연 그러한 정도로 “對不起—沒關係”쌍이 교재 속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對不起의 전형성에 대한 의문으로서 ‘그럴 것이다’라는 관념과 ‘그러하다’라는 실제 간의 괴리를 고찰하도록 요구한다. 둘째, 對不起는 사과행위만을 위해 기능하는가 하는 점이다. 예(2)에서도 보았듯, 對不起는 ‘사과’이외의 기능도 수행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사과행위 전후로 배치되는 행위들의 연속체를 고찰함으로써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셋

2) 각괄호 내 숫자는 예문의 출처, 즉 권, 과, 회화의 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5.11.1]은 제5권 제11과의 1번 회화에 출현하는 예문임을 가리킨다. 더불어 ‘對不起’ 상의 위치자는 분석자료 상에 출현한 순서대로 부여한 일련번호를 의미한다. 이하 상동.

째, 對不起가 ‘사과’ 외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과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 그리고 그것의 동인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기타 기능에 대해서는 맥락에 기초한 대화의 분석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며 그같은 기능의 변화를 유발하는 동인은 對不起 본연의 의미 구성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유추 가능할 것이다. 아래는 상기 의문점들에 대한 논의이다.

본고는 시론의 성격을 가지므로 분석의 대상을 중국어 회화 교재인 『한어구어』의 제1권부터 제6권까지 총 282개 회화단락 상에 출현하는 28개의 對不起에 국한하고자 한다. 변화의 관찰 대상으로서 회화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 가정에 기인한다. 첫째, 교재 속 회화는 저자의 관념 상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대화 양식이다. 우리의 일상을 되살펴 보자. 대화란 어떻게 전개될 지 실상 아무도 알 수 없다. 선행화자에 대한 후행화자의 대응이 맞물리며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같이 무한한 전개 가능성을 토대로 구성된 일련의 교재 대화문은 필자가 가장 ‘전형적’이라고 생각하는 대화 양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³⁾ 이는 앞서 제기한 ‘전형’에 대한 의문과 그 반증으로서 교재 속 회화가 논의의 적절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교재 속 회화는 시대 변화에 대한 대응이 더디다. 이는 ‘전형’이 가진 보수성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교재의 회화문은 이상적이란 가정 하에 선별된 어휘와 구문 그리고 그것에 의해 구성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한 번 제작된 이후로는 쉽게 개정되지 않는다. 교수자가 학습자였을 당시에도 이용하였던 교재를 현재 교수할 때도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이 더딤은 기능 변화에 대한 관찰에 한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컨대《한어구어》의 원저는 중국에서 1997년에 초판이 출판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 편역되어 출판되었다. 이는 한 언어항목의 기능 변화가 교재에서 관찰되었다면 그 변화는 최소 근 20년 전부터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현재의 일상 속에서 더욱 다양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3) 교재 대화문에 제시된 한 두 개의 전개 양상을 제외하고 그 외의 실제 가능성이 배제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화문이 현실과 보이는 괴리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對不起의 구성과 의미적 측면이다. 對不起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었으며 어떠한 의미변화 과정을 거쳤을지 그 과정을 유추해본다. 다음으로 對不起의 기능적 측면이다. 우선 對不起가 沒關係와 어느 정도의 인접성을 띠는지 고찰한다. 그 다음, 사과행위연속체 속에서 對不起가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사과행위연속체 외의 기타행위연속체 속에서 對不起가 수행하는 기능을 고찰한다.

II. 對不起의 구성

먼저 對不起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 (3) 對人有愧, 常用爲表示抱歉的套語. (《現代漢語詞典》2008:344)
(상대에게 부끄러워하다. 흔히 미안함을 표하는 상투어로 사용된다.)

對不起는 ‘부끄러워하’는 경우와 ‘미안해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그렇다면 그 동인(動因)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 하나를 더 보충해보자.

- (4) ①做錯了事, 對人有愧(和“對得起”相對); ②要麻煩別人或向人道
歉時說的客氣話. (《商務館學漢語詞典》2006:180)
① 잘못을 저질러 상대에게 부끄러워하다(對得起와 상대적이다);
② 타인을 번거롭게 하거나 사과하려할 때 하는 겸양어.)

예(4)는 對不起의 동인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타인을 번거롭히’는 데 있다고 제시한다. 정리하면 對不起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모두 표현하며 의미풀이 상의 “對人”이나 “向人”으로 미루어볼 때, 행위의 수행방향이 타자를 향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는 것과 미안함을 표하는 것은 상이한 일일 텐데 對不起가 어떻게 그 양자를 겸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같은 의미를 어떻게 획득하게 되었을까.

對不起는 ‘대면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對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가능보어 不起로 구성된 가능보어 동사구이다. 가능보어는 흔히 결과보어나 방향보어를 변용한 형태, 즉 동사와 보어성분 사이에 구조조사 得나 부정사를 삽입하여 구성된다. 예컨대 결과보어 동사구 看到的 ‘看+得/不+到’로, 방향보어 동사구 上去는 ‘上+得/不+去’로 변용가능하다. 그러나 對不起는 對起를 기본형으로 두지 못한다.(劉月華 등 2001:585) 그렇다면 吃不了, 吃了(liao)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듯,(Sun 2006:63) 우선 부정부사 不와 동사 起가 어휘화 과정을 거쳐 보어로서 기능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그것이 買不起, 經不起 등의 예처럼 동사 對와 호응하며 겸양어로 숙어화 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⁴⁾

또한 買不起, 經不起의 예로 미루어, 不起의 ‘감당할 수 없’는 원인은 주로, 금전적 방면이든 책임이나 스트레스 등의 감내 방면이든 모두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각 구성요소의 본의와 그것의 결합 순서에 기대어 봤을 때 對不起는 다음과 같은 의미 변화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면하다 + 감당할 수 없다	[對] + [不起]
대면하되 (그 결과로서)감당할 수 없다	[[對] — [不起]]
(능력의 부재로 인해)대할 수가 없다	↓
(그러므로 나는 당신보다)부족하다 ⁵⁾ → 부끄럽다	↓
겸연쩍다 → 미안하다	↓
	[對不起]
	[對不起]
	[對不起]

4) 中央研究院의 歷史語言研究所가 운영하는 漢籍電子文獻資料庫(<http://hanchi.ihp.sinica.edu.tw/>)에 對不起란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단 1건의 용례만 출현한다.《大正新脩大藏經》으로서 일본에서 1932년에 완성된 서적이다. 이로써 對不起가 가능보어 동사구로서 사용되거나 숙어화된 겸양어로서 쓰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랜 시간동안의 변화가 아닐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5) 이 같은 뜻에 있어서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한다. “과거 사람들은 對聯 겨루기를 통해 자신의 학문을 드러내곤 했는데 앞 사람이 제시한 上聯에 다음 사람이 下聯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했을 때 더 이상 겨룰 수 없음(對不下去)을 뜻하는 말로 對不起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학문과는 상관없이 사용하게 되었고 상대의 기분을 언짢게 했을 때면 겸손하게 對不起라 말하며 자신이 학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임을 내비치었다.”(百度知道 참조 [주소는 참고문헌에 명기])

상기 흐름에서 수직 방향의 화살표는 변화의 흐름을 가리킨다. 상기 (3)~(4)의 의미 풀이와 대응시켜 볼 때 미안함을 표현하는 겸양어로의 변화를 가장 극단에 놓을 수 있다. 이는 對不起가, 對와 不起가 가진 개별의미뿐만 아니라 그 의미의 함(즉, 대할 수 없다)까지 초월하여 ‘미안하다’는 별개의 의미를 생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끄럽다’ 등의 의미를 표현할 때는 앞뒤로 주체와 대상에 해당하는 명사성 성분을 놓을 수 있으나 ‘미안하다’를 표현할 때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기능하므로 ‘眞’과 같은 일부 정도부사를 제외하고는 기타 성분들의 부가가 오히려 어색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5) 我做了錯事, 對不起學校, 也對不起父母。 (《商務館學漢語詞典》 2006:180)

(내 잘못으로 인해 학교도 부모님도 뵈 면목이 없다.)
?我做了措事, 對不起 \emptyset , 也對不起 \emptyset .

- (6) 對不起, 我來晚了。 (《商務館學漢語詞典》 2006:180~181)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我對不起你, 我來晚了。

예(5)의 對不起는 ‘부끄럽다’를 의미하는데 그것의 대상인 “學校”와 “父母”를 삭제시킬 경우 더 이상 ‘부끄럽다’를 의미할 수 없게 된다. 예(6)의 對不起는 ‘미안하다’를 의미한다. 하지만 “我”와 “你”의 부가는 미안함을 표현하는데 제약을 주고 그 결과 “來晚”, 즉 ‘약속’이라는 사회 행위의 위배에 제공되어야 하는 사과 의미를 표시할 수 없게 만든다.

전자는 일종의 심리 동사구로서 전후 명사에 격도 할당되고 很이나 真是 등 정도부사의 수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후자는 어휘화의 과정을 거친, 일종의 독립된 단위로서 타동성을 상실하고 그 위치 또한 문장 내에서 자유롭다. 이는, ‘부끄럽다’이든 ‘미안하다’이든 對不起가 모두 응고된 하나의 단위로서 기능하지만, ‘미안하다’를 표현하는 對不起의 결합력이 기타 단계의 결속력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같은 유추와 더불어 對不起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對不起의 사용이 기본적으로 누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이다. 그것의 주체와 대상을 누구로 가정하고 있는 행위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이 분명 발화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對不起에 내재된 주체는 我로, 대상은 你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我)對不起(你)’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것의 제시가 필요한 이유는 對不起라는 객관적 행위⁶⁾의 심적 동인이 我에 있는지 你에 있는지에 따라 對不起를 자기지향적인(self-oriented) 對不起와 타자지향적인(other-oriented) 對不起로도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지향적인 對不起는 일반적으로 상대의 행동과 이격되는 자신의 행동을 고집하거나 자신의 부족함 또는 실수를 인지하여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즉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대면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앞서 든 예(2)가 그에 해당한다. 그에 반해, 타자지향적인 對不起는 상대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어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즉 미안하기 때문에) 대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지향적 對不起는 ‘부끄럽다’류에, 그리고 타자지향적 對不起는 ‘미안하다’류에 각각 대응된다. 이 같은 지향성의 문제는 아래 이어질 對不起의 기능에 대한 이해에 참고점을 제시해 준다.

Ⅲ. 對不起의 기능

1. 인접쌍으로서의 ‘對不起—沒關係’

‘사과하기’하면 으레 제일 먼저 ‘對不起—沒關係’쌍을 떠올린다. 이 점에 있어서는 원어민 화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가 對不起라고 하면 상대방은 沒關係로 응대해줄 것이라고 가정하고 또 상대방이 對不起라고 할 경우 나는 沒關係라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가능보어가 기타 보어와 다른 점은 “객관적인 조건이 허락하는지의 여부”를 표현하는데 있다.(劉月華 등 2001:581)

(7) [3.3.2]

.....

安 妮: 我來幫你, 王平。(安妮打碎了一個茶杯)哎呀, 杯子叫我打碎了, 真對不起⁶。

王 平: 沒事兒, 杯子我有的是。

하지만 이 같은 인접쌍의 설정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맥락의 문제이다. 사과하기는 기본적으로 나무라기의 대응행위인데(김하수 1991) ‘對不起—沒關係’는 사과를 행하는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가 제외되어 있다. 둘째, 예상할 수 있는 행위유형의 문제이다. ‘對不起—沒關係’에는 사과엔 ‘괜찮아’와 같은 ‘수용’만이 가정된 반면 사과에 대한 ‘거부’가 올 수 있다는 점은 배제되어 있다. 예컨대 미안하다고 했음에도 나무라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셋째, ‘對不起—沒關係’의 실현빈도의 문제이다. 沒關係로써 對不起에 응답하는 예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아래 분석자료 상의 관찰 결과를 보자.

‘對不起—沒關係’	N	%
인접	2	7.1
비인접	26	92.9
합계	28	100

표1. 對不起에 沒關係가 인접하고 있는 경우의 수

관찰 결과를 보면 沒關係가 對不起에 인접하여 나타나는 경우는 총 28개 對不起 중에서 두 개의 예에 불과하다. 이 같은 결과는, 역으로, 對不起에 대한 대응 중 절대 다수가 沒關係로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對不起—沒關係’쌍이 과연 전형적인 인접쌍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8) [1.10.2~3]

.....

田老師: 請進!

杰 夫: 對不起¹, 我來晚了。
 同 學: 你怎麼才來?
 杰 夫: 我的鬧鐘睡覺了, ……
 田老師: 你們有問題嗎?
 杰 夫: 沒有, 沒有, 對不起²。

예(8)은 교실에서의 상황이다. 수업이 이미 개시된 상태에서 杰夫가 늦게 들어오며 “對不起, 我來晚了。”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 田老師가 沒關係라고 대응하면 대화는 오히려 어색해진다. 다시 그 아래, 한담을 하다 田老師로부터 제지를 당한 杰夫가 “沒有, 沒有, 對不起”라고 한다. 전자와 마찬가지로, 沒關係를 이용한 대응은 부적절하다. 이처럼 입문 교재에서부터 ‘진형’에 배치되는 경우가 출현한다. 이 같은 對不起와 沒關係 간의 부조화는 예(8)이 교실이라는 제도적 맥락 속에서 진행된 대화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분명한 공준, 즉 제도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체에서는 그 기준을 어긴 자의 사과가 곧바로 수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9) [5.9.2]

……

安 妮: 你怎麼才來? 晚會早就開始了。
 吳平春: 對不起¹⁸, 讓大家久等了。我把時間看錯了。
 麗 莎: 罰酒一杯! ……

예(9)는 고별파티의 장에서의 대화이다. 늦게 도착한 吳平春에게 安妮가 “你怎麼才來……”로써 나무라자 吳平春이 對不起를 서두로 늦은 이유를 부연하고 있다. 이 경우 역시도, 對不起에 대응하여 沒關係가 나와야 할 것 같지만 친구들은 농담—“罰酒一杯”—으로써 沒關係를 대신하고 있다. 吳平春이 비록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어겼다하더라도 친구들끼리 함께하는 격의 없는 자리에서 沒關係로의 대응은 오히려 吳平春을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사람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어색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다. 더불어 예(9)처럼 對不起는 對不起로써만 끝나는 경우가 없다. 對不起

와 함께 상대방부터 자신을 이해시키고 잘못을 만회하기 위한 이유로서의 부연 설명이 항상 뒤따른다.

종합하자면, 표1의 결과와 예(8), (9)의 관찰을 토대로 볼 때 사과행위로서 가진 ‘對不起—沒關係’쌍의 전형성은 재고의 여지를 갖는다. 그리고 그것의 유효성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사과행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좀 더 다양한 표현과 인접쌍의 제시가 교육에서 요구된다. 더불어 ‘對不起—沒關係’쌍의 비인접 현상은, 상기 예 외에도, 對不起가 沒關係 외에 기타 다른 구성 요소들과 호응하면서 기능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으리란 예상도 가능케 한다.

2. 사과행위연속체에서의 對不起

김희수(1991:43~46)는 사과하기의 행위구조를 제시하면서, 사과하기란 행위는 나무라기⁷⁾ 행위에 의해 촉발되고 그것이 다시 나무란 이에게 수용됨으로써 회복초치에 의해 마감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0) [4.2.1]

.....

隣 居: 對不起¹³, 您家的電視能不能小點兒聲?.....[나무라기]
 妻 子: 真對不起¹⁴, 影響你母親休息了。 [사과하기]
 丈 夫: 實在抱歉, 我一看球就大喊大叫..... [사과하기]
 隣 居: 別這麼客氣! 咱們倆一樣, 都是球迷。現在幾比幾?
 [회복시키기]

예(10)에서 隣居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집을 방문하여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한다. “能不能”을 이용하여 강요성을 낮춘 지시행위를 하고 있으나 그 행위의 근거는 ‘공동주택에서는 상호 배려해야 한다’는 규범의 훼손을

7) 나무라기는 나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사회 규범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사회 규범에 복속하든지 구체적 저항 여부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언어행위”이며 사과하기는 “상대방의 나무람을 의의 없이 받아들이는” 언어적 행위이다.(김희수 1991:43)

지적하고 있다. 이에 부부는 잘못을 인지하고 각각 “對不起”와 “抱歉”으로 써 사과한다. 그리고 隣居는 부부의 사과를 보상으로 인정하며 “別那麼客氣”로써 회복시키기를 수행한다.

사과행위의 행위연속체는 보통 위와 같은 구조를 띠지만 사과행위가 반드시 나무라기에 의해 촉발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앞서 예(8)에서 보았듯, 상대방의 나무람이 있기 전에 자신 스스로가 잘못을 깨닫고 주동적으로 사과하기를 하는 경우가 그렇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11) [3.1.1]

杰 夫: 都一點了, 你怎麼還在睡覺? [나무라기]
 王 平: 我們中國人習慣午飯以後休息一會兒, 這叫“午睡”。[해명하기]
 杰 夫: 是嗎? 真對不起⁵, 打擾了。 [사과하기]
 王 平: 沒事兒, 我已經睡够了, 快請坐。 [회복시키기]
 ……

예(11)에서 杰夫는 낮잠을 자고 있는 王平을 깨우며 나무란다. 외국인으로서 중국인의 낮잠습관—“午睡”—을 몰랐던 탓도 있지만 정오가 될 때까지 내쳐 자는 줄 오해하였던 것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보편적 규범에 기대어 행한 나무라기는 王平의 해명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나무람이 잘못 수행되었음을 인지한 杰夫가 이내 王平에게 주동적으로 사과를 하고 王平은 이에 대해 “沒事兒”로 회복시키기를 한다. 이 같은 구조에서의 사과하기와 회복시키기를 ‘주도적 사과하기’와 ‘강요된 회복’이라고 하는데, 주도적인 사과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자인하는 행위로서 더 이상의 나무람을 미연에 차단하고 자신에 대한 회복시키기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행위이다.(김하수 1991:53~54) 이러한 구조는 예(12)처럼 흔히 약속 시간에 대지 못하였을 때 출현한다.

(12) [5.9.2]

大 衛: 對不起¹⁹, 對不起²⁰, 我們來晚了。 [사과하기]
 王 峰: 我都出來三次了。是不是忘了我家的地址了? [나무라기]

大 衛: 地址倒沒忘, 都怪瑪麗,

[해명하기]

주도적인 사과는 쌍방 과실의 경우 강요된 회복이 생략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3) [3.10.1]

- 甲: 對不起⁸, 真對不起⁹, 光顧想事了, 沒看見您過來。
[사과하기; 설명하기]
- 志 永: 對不起¹⁰, 是我不好, 騎得太快了。您摔疼了沒有?
[사과하기; 질문하기¹]
- 甲: 沒事兒, 沒事兒。
[대답하기]
- 志 永: 實在對不起¹¹。
[사과하기]
- 甲: 真的沒事兒, 您騎上走吧。不過, …… [대답하기¹]

예(13)은 甲과 志永 간에 일어난 자전거 사고이다. 서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對不起”를 연발하고 있는데, 이 같은 구조 속에서 對不起에 대응하는 (강요된)회복은 출현하기 힘들다. 다만 상대의 對不起에 대해 똑같이 對不起로 응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회복시키기와 더불어 자신에 대해서도 상대가 회복시켜주길 바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 더불어, 예(13)에서의 “沒事兒”은 對不起에 대한 대응이 아닌 “您摔疼了沒有?”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구조적으로 志永의 “對不起”에 대한 대응이 아닌데다 對不起에 후행하는 “您摔疼了沒有?”란 질문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사과행위연속체와 對不起를 연계시키면 그 구조는 [나무라기 → 對不起 → 회복시키기]의 구조를 띠며 對不起로써 주도적인 사과를 할 경우에는 [Ø — 對不起 → 강요된 회복] 구조를 띤다. 상기 두 연속체를 사과행위의 기본구조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회복시키기’가 출현하지 않거나 출현하면 더 어색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를 토대로 분석자료 속에서 對不起가 출현하는 행위연속체 구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행위연속체	출현횟수	백분율
①	[나무라기 → 對不起 → 회복시키기]	3	10.7
②	[나무라기 → 對不起 → Ø]	1	3.6
③	[Ø — 對不起 → 강요된 회복]	3	10.7
④	[Ø — 對不起 → Ø]	8	28.6
⑤	[Ø — 對不起 — Ø]	13	46.4
합계		28	100

표2. 사과행위연속체 속의 對不起 출현 수

①번 [나무라기→對不起→회복시키기]는 가장 기본적인 사과행위연속체이고 ②번 [나무라기→對不起→Ø]는 ①에서 ‘회복시키기’가 생략되거나 제외된 구조이다. ③번 [Ø—對不起→강요된 회복]은 주도적인 사과의 구조로서 앞의 ‘Ø —’는 행위구조 상의 흐름(‘→’)이 아닌 원래부터 제공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④번 [Ø—對不起→Ø]는 주도적인 사과의 구조에서 ‘강요된 회복’이 생략되거나 제외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⑤번 [Ø—對不起—Ø]는 그것이 사과행위연속체 구조가 아님을 가리킨다. ⑤번 구조는 對不起가 출현하는 맥락이 나무람의 준거가 되는 사회 규범의 훼손에 기인하지 않으므로 그것의 앞뒤로 ‘나무라기’나 ‘회복시키기’가 배치되지 않는다. 이 구조에서 對不起는 개인 진술이나 기타 인접쌍 중간에 삽입되어 거절 또는 새로운 행위나 국면의 전환 등을 피할 때 사용된다.

통계값을 살펴보면, 對不起는 ①번 구조에 3회(10.7%), ②번 구조에 1회(3.6%), ③번 구조에 3회(10.7%), ④번 구조에 8회(28.6%), ⑤번 구조에 13회(46.4%) 출현하였다. 이는, 첫째, 對不起가 나무라기에 의한 사과행위연속체 구조(4회, 14.3%)보다는 주도적인 사과행위연속체 구조(11회, 39.3%)에 더 많이 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분석자료 속에서 對不起는 타인에 의한 피동적인 사과보다는 스스로에 의한 주동적인 사과행위에 더 많이 기능한다. 둘째, 對不起가 총량적 측면에서는 사과행위연속체 구조 속에서 조금 더 많이 기능한다(15회, 53.6%). 그리고 상기와 같이, 사과행위연속체를 나무라기에 의한 사과행위연속체 구조와 주도적인 사과행위연속체 구조로 양분하였을 때 對不起는 주도적인 사과행위연속체 구조에서

더 많이 기능한다. 하지만 주도적인 사과행위연속체 구조에서의 對不起도, 양적 측면에서, 기타행위연속체 구조 속에서의 對不起에 못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對不起가 사과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보다 기타 행위를 수행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행위수행		N	%	합계
사과행위	나무라기에 의한 사과	4	14.3	53.6
	주도적인 사과	11	39.3	
기타행위		13	46.4	46.4
합계		28	100	100

표3. 對不起의 사과행위 대 기타행위 구조 속 수행 수

3. 기타행위연속체에서의 對不起

본 절에서는 對不起가 기타행위연속체 구조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본다. 먼저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14) [2.4.2]

.....

李文靜: 今天外邊天氣好極了, 我陪你出去散散步, 怎麼樣? [진술하기;
제안하기]

張 新: 對不起³, 我不能去。等一會兒有個朋友要來看我。 [거절하기;
이유대기]

.....

예(14)는 친구 병문안의 상황이다. 몸이 불편한 張新에게 李文靜이 병문안을 왔다. 李文靜은 자신이 데리고 나갈 요량으로 산책을 제안하는데, 張新은 친구가 온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다. 상기 예에서 對不起는 [제안하기 → 거절하기]의 인접쌍 중간에 위치하여 상대의 제안을 좀 더 부드럽게 거절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 기능을 하고 있다. ‘완충’장치로서의 對不起는, 특

히 이 구조에서, 생략이 가능한데 “我不能去” 뒤로 거절의 이유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는 거절의 강도를 낮추는 힘이 對不起보다 ‘이유대기’가 더 크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예컨대, [我陪你出去散散步怎麼樣? → 對不起, 我不能去。]으로만 대화가 끝났다면 李文靜은 자신의 호의에 심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그러나 [我陪你出去散散步怎麼樣? → 我不能去。等一會兒有個朋友要來看我。]로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면 “對不起, 我不能去。”보다 훨씬 부드럽게 대화가 종료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완충’장치로서의 對不起는 제안이나 요구 등의 지시행위에 대해 곧 뒤따를 거절을 청자로 하여금 예견케 함으로써 좀 더 원활한 대화의 구성을 도모한다.⁸⁾

(15) [6.2.2]

.....

安娜: 我可以看一下嗎? [요청하기]
 老人甲: 看看吧。怎麼樣?.....這叫画眉, 叫得可好聽了。不過, 要是養不好, 它也不叫。(鳥來回扑動)對不起²⁴, 我得盖上了, 這鳥有點兒不高興了。 [수용; 소개; 예고; 이유대기]

.....

예(15)는 중국의 아침풍경을 구경나온 安娜와 새를 갖고 나온 老人甲 간의 대화이다. 나무에 걸린 새장을 보고 보여 달라는 安娜의 요청에 老人甲이 수용하며 대화가 이어진다. 老人甲은 외국인에게 자신의 새를 자랑하면서 이름이며 깃는 소리며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소개를 한다. 그런데 새가 갑자기 놀란 반응을 보이자 막을 다시 씌우며 對不起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의 행위구조는 기본적으로 [요청하기 → 수용하기]이다. ‘수용하기’ 뒤로 老人甲의 후행발화인 소개하기가 그 뒤를 잇는다. 여기까지는 安娜에 대한 호의적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뒤를 잇는 “我得盖上了”부터는 수용할 때의 “看看吧”와 대조를 이루는데, 곧 덮는 행위를 할 것임(사실 덮는 행위와 동시에 발화할 가능성이 높다)을 예고하고 왜 덮는지를 설명하

8) 생략의 가능성이나 거절의 예견 등의 측면에서 對不起는 ‘哎呀’ 등의 감탄사와도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 때문이다. 이는 선행하는 호의적 행위에 반하는 비호의적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행위의 순서는 [A:요청하기 → B: 수용하기—소개하기—예고하기—이유대기]로 구성되며 이 중 B의 행위는 [(수용하기—소개하기) 호의적—(예고하기—이유대기) 비호의적]로 재분류될 수 있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對不起는 호의적 행위와 비호의적 행위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여기서 對不起의 위치가 갖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앞서 논했던 완충장치로서의 기능이다. ‘호의’에서 ‘비호의’로의 상황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경함을 퇴색시키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예(14)가 두 화자의 인접행위 간에서 완충기능을 한다면 예(15)는 동일 화자의 발화 속에서 완충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둘째, 국면의 ‘전환 예고’장치로서의 기능이다. 동일 화자의 발화 중간에 위치하여 그것의 출현을 전후로 국면의 전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예컨대 예(15)에서 對不起는 동일 화자의 발화임에도 호의에서 비호의, 즉 타자지향적인 행위(怎麼樣?……)에서 자기지향적인 행위(我……, 這鳥……)로의 국면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동일 화자의 발화 속에서 이뤄지는 국면의 전환은 언어 행위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행위도 함께 동반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16) [6.2.1]

……

瑪麗: 王峰, 那邊幾位老人在幹甚麼?

王峰: 過去聊聊不就知道了? 對不起²³, 我還得跑兩圈兒, 回頭兒。

(17) [6.7.1]

學生甲: ……當然, 也有學實用技術的, 像烹調、服裝裁剪、汽車或者
家電修理、美容...總而言之, 學甚麼的都有。

瑪麗: (看了看表)哎哟, 對不起²⁷, 已經過了上課的時間了, 咱們上課吧。

예(16)과 예(17)의 對不起는 모두 국면 전환의 기점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예(16)에서 王峰은 瑪麗의 질문에 대답을 거부한 채) 운동을 더해야

9) 상대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발화 자체를 가리키는 연표적 행위는 수행했다고

한다고 하면서 對不起로써 새로운 국면의 기점을 알리고 더불어 신체행위까지 동반하고 있다.¹⁰⁾ 예(17)에서도 瑪麗는 밤생활에 대해 學生甲와 대화를 나누다 수업시간이 지났음을 알고 “哎喲”로써 사태의 인지를 표시한다. 그런 다음 對不起로써 (친구와의) ‘대화’에서 ‘수업’이라는 국면의 전환을 알리고 자리를 일어나는 신체행위까지 동반하고 있다.

끝으로, 예(2)를 다시 살펴보자.

(2) [5.11.1]

.....

瑪麗:對了, 我想起來了, 你那個“炒土豆”做得不錯,

[진술하기]

王峰: 那不是炒土豆, 是素炒土豆絲.

[수정하기]

瑪麗: 對不起²¹, 我忘了. 哎, 對了, 你教我做這個菜吧!

[수용하기; 요청하기]

王峰: 行啊, 你有廚房用具嗎?

[수용하기; 질문하기]

예(2)는 요리와 관련한 대화로서, 예(2)에 앞서 瑪麗는 요리를 할 수 없다고 하고 王峰은 요리가 쉽다고 하였다. 대화를 잇는 도중 瑪麗는 과거 王峰이 해주었던 요리를 떠올리며 맛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王峰은 瑪麗의 칭찬—“不錯”—에 반응하기보다 瑪麗의 말을 수정해준다. 이에 瑪麗는 王峰의 수정에 수긍하며 더 나아가 요리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다. 對不起는 이 중 [수정하기 → 수용하기] 구조 속에서 사용되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對不起가 王峰의 ‘수정하기’에 호응한다고 보는 데도 무리가 있고, 또 ‘수용하기’가 청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완충장치로서 기능한다고 보는 데도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할 수 있으나 정보의 요구라는 질문의 언표내적 행위에는 반응하지 않았으므로 대답을 거부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10) 정확히 말하면 동반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교재라는 서면 자료의 특성상 가시적인 행동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행위를 동반하는 역할극을 수행하였을 때 “.....回頭見。”이나 “咱們上課吧。”를 발화하고도 그 위치를 그대로 고수할 경우 얼마나 어색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대가 자신의 말에 수정을 가해주면 그것의 수용행위로서 ‘知道了’, ‘明白了’, ‘謝謝’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데 瑪麗는 자책—“我忘了”—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對不起”를 제외하고 “那不是炒土豆, 是素炒土豆絲。—我忘了。”로만 대화가 종료되었다면 “我忘了”는 자책이 아닌 상대의 지적에 대한 불쾌감의 표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고의적이지 않은 결과임에도 수정이 가해졌다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다. 對不起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상대의 수정에 대해 불쾌하지 않게 수용하는 자세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對不起는 “我忘了”라는 자책을 하기 전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唉”, “哎呀” 등의 어기표지로도 볼 수 있다. 이는 상대의 발화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과 더불어 상대가 수정을 하게 된 원인이 내게 있다는 것을 표시함으로써 “我忘了”가 불쾌가 아닌 수용의 행위로 해석되도록 유도한다.

종합하면, 거절이나 지시행위 등에 앞서 선행행 화자 간 이견을 완화시키는 ‘완충’기능, 동일 화자의 발화 중간에 출현하여 두 국면의 전환을 알리는 ‘전환예고’기능, 선행화자의 수정행위에 적절한 대응을 이끄는 ‘어기표시’기능으로 귀납할 수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위수행	연속체구조	N	%
완충	[제안하기 → 對不起+거절하기/지시하기]	7	53.8
전환예고	[국면 ¹ +對不起+국면 ²]	3	23.1
어기	[수정하기 → 對不起+수용하기]	1	7.7
기타		2	15.4
합계		13	100

표4. 對不起의 기타행위 구조 속 수행 수

표4를 보면 완충 기능의 수행이 7회(53.8%), 전환예고 기능이 3회(23.1%), 어기표현이 1회(7.7%)이다.(‘기타’는 판단유보) 결과적으로 對不起는 기타행위연속체 속에서 거절이나 지시 등의 행위에 앞서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국면의 전환을 알리는 데 기능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對不起가 ‘사과’의 기능에서 벗어나 청자의 기대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거절’이나 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지시’ 등의 행위에 선행함으로써, 좀 더 큰 범위에서, 대화참여자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확대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IV.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화용론과 대화분석의 시각에서 對不起의 기능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본고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앞서 ‘문제제기’절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을 재상기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對不起”하면 “沒關係”를 먼저 떠올리는데 과연 그러할 정도로 “對不起—沒關係”쌍이 교재 속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가? 분석 결과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줄곧 對不起 본연의 기능을 사과행위의 수행으로 여겨왔다. 그리고 沒關係를 그것의 대응어로 놓고 ‘對不起—沒關係’란 인접쌍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관찰 결과는 절대 다수인 93%의 對不起에 沒關係가 인접해 있지 않았다. 맥락에 대한 고려, 사과와 수용거부 가능성 등을 감안하지 않았던 결과이나 이러한 인접쌍이 이미 사용자들에게 ‘전형’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은, ‘전형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둘째, 對不起는 ‘사과’행위만을 위해 기능하는가? 분석 결과 그렇다고 볼 수 없다. 본고의 관찰 결과 상 사과행위에 기능하는 對不起(53.6%)가 기타행위에 기능하는 對不起(46.4%)보다 더 많이 출현하였다. 사과행위에 기능하는 對不起가 그렇지 않은 對不起보다 빈도 상 높지만 기타행위에 기능하는 對不起의 출현률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사과는 곧 對不起”란 선입견을 깨기에 충분하다. ‘사과’의 對不起만 보면 다시, ‘나무라기에 의한 사과’와 ‘주도적인 사과’로 양분할 수 있는데 전자가 14.3%였던 반면 후자는 39.3%를 보였다. 이는 ‘사과’의 對不起가 ‘주도적인 사과’의 행위구조에 상대적으로 자주 출현하며, 그 결과 상대의 나무람을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대화 참여자의 상호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기타행위에 기능하는 對不起의 비율로 미루어보아 對不起의 기능 변화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향후에도 꾸준히 요구된다.

셋째, 對不起가 ‘사과’ 외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과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 자료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대화 속에서 비선호되는 거절이나 지시 등의 행위에 선행함으로써 비선호되는 정도를 낮추는 ‘완충’기능과 동일 화자의 발화 중간에 출현함으로써 對不起의 전후로 국면이 전환됨을 알리는 ‘전환예고’기능, 그리고 불가항적인 여건을 표현하는 데 선행함으로써 화자의 깨달음이나 탄식의 어기를 표시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본고는 시론이라는 성격상 분석의 대상을 회화교재에 국한하였다. 對不起의 기능변화에 대한 보다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분석을 위해 향후 연구는 자연담화에 대한 관찰과 분석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하수(1991), 「화행의 개별 언어적 현상: 한국어에서의 나무라기와 사과하기」, 『人文科學』 제65집, pp.29~62.
- 김하수(2008), 「언어와 문화 교육에 대한 화용론적 해석—학술적 발전에 대한 반성을 곁들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제33권, pp.1~17.
-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이재희, 유범, 양은미, 한혜령, 백경숙, 안경화, 나경희(2011), 『영어교육을 위한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 劉虹(2004), 『會話結構分析』,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劉月華, 潘文娛, 故韡(2001), 『實用現代漢語語法』, 北京: 商務印書館.
- 呂叔湘 主編(1999), 『現代漢語八百詞』, 北京: 商務印書館.
-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編(2006), 『商務館學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2005), 『現代漢語詞典』(第5版), 北京: 商務印書館.
- Sun, Chao Fen(2006), Chinese: A Linguistic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戴桂芙, 劉立新, 李海燕(2009), 『한어구어』1, 서울: 중국어뱅크.

戴桂芙, 劉立新, 李海燕(2010), 『한어구어』2, 서울: 중국어뱅크.

戴桂芙, 劉立新, 李海燕(2010), 『한어구어』3, 서울: 중국어뱅크.

戴桂芙, 劉立新, 李海燕(2009), 『한어구어』4, 서울: 중국어뱅크.

劉德聯, 劉曉雨(2009), 『한어구어』5, 서울: 중국어뱅크.

劉德聯, 劉曉雨(2010), 『한어구어』6, 서울: 중국어뱅크.

참고사이트: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漢籍電子文獻資料庫: <http://hanchi.ihp.sinica.edu.tw/>

百度知道:http://zhidao.baidu.com/question/136159718.html?qbl=relate_question_0&word=%8C%A6%B2%BB%C6%F0%20%81%ED%D4%B4

❖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of Functions of *Duibuqi*

Park, Chan Wook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functions of *duibuqi* and analysis other fuctions of *duibuqi* apart from apology from pragmatics and conversation analysis perspectives. *Duibuqi* consists of *dui*(face) and *buqi*(be not capable of performing), and means ‘be not capable of facing’. After that, it is assumed to have changed to ‘ashamed’ and finally ‘sorry’.

In terms of functions, *duibuqi* is generally regarded as meaning ‘sorry’ typically, so *mei guanxi* is considered to consist adjacency pair with it, but in this investigation, *mei guanxi* is very little adjacent to *duibuqi* contrary to expectation($n=2/28$, $per.=7.1/100$). About half of *duibuqi*($n=15/28$, $per.=53.6/100$) functions in apology action sequence, and in the sequence, *duibuqi* functions much more for take the lead in apology($n=11/15$) but not for a reaction against scolding($n=4/15$). And the other half of *duibuqi*($n=13/28$, $per.=46.4/100$) functions for softening the impact of reject or direct action, or for switching situations, e.g. from favorable situation to unfavorable situation, or for expressing speaker’s emotion to the other’s repair etc.

Consequently, *duibuqi* has being changed its meanings and its functions is being changed accordingly.

Key Words

對不起, 인접쌍, 사과행위구조, 화용론, 대화분석

duibuqi, adjacency pair, apology action sequence, pragmatics, conversation analysis

논문접수일: 2014년 11월 20일

심사완료일: 2014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16일